수도권기상청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7. 23.(목) 12:00 배포 2026. 7. 23.(목) 10:00

수도권기상청, 시민과 함께하는 「우리동네 기후연구소」 확대 운영

- 전년 대비 참여 기관(6곳 → 9곳)과 시민연구원(646명 → 781명) 확대
- '기온관측', '탄소중립 실천'과 더불어 '제안', '특이날씨 포착'까지 활동 확대

수도권기상청(청장 김현경)은 시민참여형 기후변화 프로그램인 「우리동네 기후연구소」를 수도권 9개 기관과 협력하여 오는 7월 25일(토)부터 확대 운영한다.

지난 해 첫 시행에 이어 올해는 참여 규모를 확대하여 서울·인천·경기 지역 9개 기관*과 협력해 781명의 시민연구원이 참여하며, 서대문구, 동대문구, 김포시, 성남시가 새롭게 참여해 시민 참여 기반을 더욱 넓혔다.

* 서울(은평구, 서대문구, 동대문구), 인천(제물포구), 경기도(수원시, 성남시, 김포시, 가평군, 양평군)

※ 전년 대비: (참여기관) 6곳 → 9곳(3곳↑), (시민연구원) 646명 → 781명(135명↑)

「우리동네 기후연구소」는 참여시민이 '시민연구원'으로 임명되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기온과 날씨를 관측하고, 생활 속 기후위기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실천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, 시민들이 기후변화를 보다 가까이에서 이해하고 자발적인 기후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.

특히 올해는 지난해 활동한 '기온관측'과 '탄소중립 실천'에 더불어, '특이날씨 포착', '더위 불편 찾기 및 제안'을 추가하여 확대 운영한다. 모든 활동내용은 온라인 협업 플랫폼 '패들렛(padlet)*' 을 통해 시민연구원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되며, 서로의 관측 결과와 실천 사례를 보며 동기를 얻고 자발적인 기후행동을 확산해 나가게 된다. <붙임 1 참고>

* 패들렛(padlet): 하나의 작업공간에 초대된 다수의 사람들이 글, 사진, 링크 등을 메모지 형태로 붙여 소통하고 공유하는 온라인 협업 플랫폼

시민연구원들은 7월 25일부터 9월까지 활동을 수행하며, 활동 종료 후 연말에는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참여기관에서 결과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. 이 자리에서는 시민들이 관측한 기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한 기온 분포도와 미래 기후전망 자료를 참여자들과 공유하고, 프로그램 성과를 함께 되짚는 시간을 갖는다. 또한 기관별로 우수활동자에게는 수도권기상청장상 수여, 모바일 상품권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격려할 예정이다.

김현경 수도권기상청장은 "기후변화는 시민 모두가 함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할 과제"라며, "우리동네 기후연구소가 시민이 지역의 기후변화를 직접 관찰하고 탐구하는 것을 넘어 생활 속 실천과 지역사회 제안으로 이어지는 기후행동의 확산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. "고 밝혔다.

붙임 1. 「우리동네 기후연구소」 활동 예시
붙임 2. 「우리동네 기후연구소」 오리엔테이션 개최 사진

담당 부서	수도권기상청 기후서비스과	책임자	과 장	고수미 (031-8025-5040)
		담당자	주무관	김지혜 (031-8025-5045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1 「우리동네 기후연구소」 활동 예시

① '기온관측' 게시판	
② '기후실천' 및 '특이날씨 포착'	
③ 더위 불편 찾기와 '제안'	

붙임 2 「우리동네 기후연구소」 오리엔테이션 개최 사진

2026.7.16.(목) 서울 동대문구 탄소중립지원센터 오리엔테이션 사진

2026.7.17.(금) 서울 은평구 오리엔테이션 사진